

내수악화·발목인 재정...내년 경기 장기 저성장 국면

내수 짓누르는 가계부채 연체 늘고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 빨간불 두달 연속 증가세 돌아선 반도체 수출 혼풍 경기 전반 확산 한계 정부 내년도 재정지출 최대한 억제 '경기 버팀목' 마져 사라져

올해 국제적인 고금리 기조 속 저성장과 내수악화, 가계부채 증대, PF 부실 등 악화일로를 걸었던 국내경기가 내년도 반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의 엔진을 '반도체'로 꼽고 있다. 올해 4분기 들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자 수출도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반도체 효과에 힘입어 경기회복세가 본래대로 오르면서 '저성장 클레'에서 벗어날지, 아니면 적당한 수준에서 경기회복에 그칠지가 변수다.

가파른 국가재정 악화 탓에 정부가 '지원사각'에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고금리 속에 가계의 소비 여력이 제한된 구조적 한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폭넓은 인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혼풍, 서서히 불지만...저성장·내수부

진 장기화 우려=일단 반도체에서는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11월 반도체 수출은 95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2.9% 증가하면서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11월 수출은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반도체발 혼풍이 경기 전반으로 폭넓게 퍼지지 못하는 모양새다.

11월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만1000명 줄면서 11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내수는 고금리·고물가에 짓눌려 개선의 조짐조차 감지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 지수는 전달보다 0.8% 하락했다. 서비스 소비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도 같은 기간 0.9% 감소로 전환했다.

한국 경제의 부진이 해외발 전쟁 이슈, 글로벌 긴

축기조, 교역량 감소 등 대외 요인에 기인한 측면은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지지부진한 구조개혁 등과 맞물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 안팎의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2.0%로 예측해 이런 우려를 더 키웠다.

◇내수 짓누르는 가계부채...금융안정 '뇌관' =저 성장과 더불어 가계부채 문제는 내년도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금리로 부채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내수 소비를 한층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성도 저해할 수 있다.

가계가 짊어졌던 빚의 규모를 의미하는 가계신용은 지난 9월 말 기준 1875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부터 기준금리를 3.00% 포인트(p) 인상하면서 '영끌족' 등 가계의 이자 부담도 이미 한계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0.89%로 전 분기(0.86%)보다 0.03%p 올랐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대출의 신규연체는 취약자와 비은행금융기관

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와 기업 대출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고금리 환경과 맞물려 향후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부동산 PF 부실이 내년부터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9월말 기준 2.42%로 6월말(2.17%) 대비 0.24%p 상승했다. 작년 말(1.19%) 대비로는 1.23%p 올랐다. 특히 저축은행 상위 5개사의 PF 연체율은 6.92%에 달했다.

PF 시장 분위기가 악화하자, 대주단 협약을 통한 만기 연장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이연해왔던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육식 가리기'에 나섰다.

◇재정지출 최대한 억제... '경기 버팀목' 사라지나=거시-금융 리스크 상황에서도 정부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에서 급격히 불어난 재정적자를 최대한 정상화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

정책 기조를 둘러싼 여야 간 적정성 공방과는 별개로, 재정 역할론은 당분간 뒷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에 없다는 뜻이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대비 2.8% 증가한 656조6000억원이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4.9%)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로, 정부지출이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냈지만, 정부 재정적자는 악화일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4%에 근접한 상황이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상한(3%)을 넘는다는 의미다.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원으로 61조원 늘면서, GDP의 51%에 달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4%(본예산 기준)에서 내년 51.0%로 높아진다.

통화-재정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니, 그만큼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의 강도는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 관광객 유입 마중물 역할할 것

비즈 & 피플 이경원 다울엔터테인먼트 대표

"광주를 대표하는 마이스(MICE) 기업으로 창의적인 전시와 체험을 통해 광주 관광산업에 기여하고, 광주를 넘어 세계에서 경쟁하는 문화콘텐츠 제작업체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주에 기반을 둔 MICE 업체 '(주)다울엔터테인먼트' 이경원 (50) 대표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로 광주와 전남으로 관광객을 끌고 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등 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이다.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차세대 산업으로 분류된다.

다울엔터테인먼트는 이미 광주와 전남 MICE 업계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회사다. 당장 국제 농업박람회, F-1 코리아 그랑프리, 삼성전자와 기아 등 대기업 행사, 일-드림 취업박람회 등 지역의 굵직한 행사는 다울엔터테인먼트 손을 거쳐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최근 열린 광주관광재단 출범식에도 이 대표는 MICE 업계 대표 자격으로, VIP에 초대되기도 했다.

지난 2002년 업계에 발을 내딛은 이대표는 우연한 계기로 문화기획자의 길을 걷게 됐다. "1990년대 후반 충장로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IMF로 모두 망해버렸죠. 그러다 이벤트 관련 사업을 하는 형의 요청으로 대학생 캠프, 청소년 캠프에 일을 도우려다가 '이게 내 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벤트 기획자 일을 시작한 이대표는



2002년 출발한 광주 MICE 업체 직접 만든 콘텐츠로 행사 차별화 6000평 관광농원 나주 명소 자리

단순에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역에서 개최하는 대형 행사라면 그가 빠지지 않았다.

그는 이벤트 기획자로서의 높은 자부심을 드러냈다. "다울엔터테인먼트는 직접 콘텐츠를 만

든다는 점에서 다른 MICE 기업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행사대행업은 공공기관이나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행사를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콘텐츠는 대부분 임대하거나 카피(copy)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울은 직접 만든 콘텐츠를 활용해 행사에 차별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다울엔터테인먼트는 평범한 MICE 기업이 아닌 문화기획자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선투자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고객과 기업에게 먼저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두고 있다고 했다.

동물아카데미와 직업 진로 체험공간인 키자비 등 그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만 10여개에 달한다. 최근 이 대표가 나주에 문을 연 '다도로60'도 새로운 콘텐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를 올해 초 나주시 다도면에 6000평 규모의 관광농원을 오픈했다. 감과 배나무 블루베리를 식재한 영농체험장과 온·오프로드 카트체험장, 대형 카페 등이 주요 콘텐츠다.

"코로나19로 꽤 오랜기간 행사가 멈춰있을 때, 기후위기와 바이러스에서 벗어나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다도로60은 일찍이 나주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다도로60을 통해 파생되는 경제효과도 지역에서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에도 우수한 문화기획자가 많고, 대기업과 경쟁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한다"며 "끊임없는 콘텐츠 개발로 지역 관광산업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WA뱅크 출시 기념 풍성한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2024년 1월 31일까지 광주은행 개인 스마트뱅크 '광주 와(Wa)뱅크'에서 'WA 돈받는 PUSH 정오의 알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이번 이벤트는 오후가 필수다. 신청고객에 한해 영업일 정오에 발송되는 'PUSH 알림'을 선택할 시 최소 1원부터 최대 100원의 현금을 계좌로 입금받는다. 이용자는 1일 1회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PUSH 알림을 놓쳤을 경우, 와뱅크 메인화면 상단의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스마트알림함에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오는 2024년 2월 9일까지는 '광주 와뱅크' 오픈 기념으로 게임을 즐기면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와와 오락실로 놀러Wa' 이벤트를

진행한다.

'와와 오락실'은 개주일 미니게임 2종(Wa팡, 상자싸기)으로 구성되어 있고, 게임결과에 따라 행운권을 제공한다. 게임 랭킹, 특정 스테이지 이상 완료 등에 따라 메가박스 영화쿠폰, 올리브영 모바일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00-4000)로 문의 가능하다.

박종춘 광주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은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복잡하고 딱딱한 금융앱에서 벗어나 고객님께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광주 와(Wa)뱅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롯데백화점 광주점 담양 인기 '카페어텐션플러스'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담양의 유명 베이커리 카페 '카페어텐션플러스'의 스콘, 바게트, 카이막 등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28일까지 본관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카페어텐션플러스' 팝업 매장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삼성전자, 1월 한달간 '세일 페스타'...주요 제품 특별 할인

삼성전자가 2024년을 맞아 내년 1월 한달간 '2024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이하 삼세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2024 삼세페'는 가전, 모바일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삼성닷컴에서는 65형 QLED TV와 비스포크

25kg 세탁기·20kg 건조기를 한정 수량에 한해 특가 판매한다.

또 TV와 모니터, 비스포크 냉장고·김치플러스 등 비스포크 가전, 갤럭시Z폴립 등 모바일 기기, 하만카툰 등 오디오 기기 등 총 133개 모델을 특별 할인가에 선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신세계 지역 인재 육성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등 9명 영업 등 부서 투입 5주간 직무 특성 실제 업무 배워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내년 1월 23일까지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프로그램에는 전남대학교 대학생 등 9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광주신세계의 영업·고객서비스 부서에 투입돼 업무지식을 배우고, 실천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현장실습 1주 차에는 백화점 투어와 패션팀, 경리팀, 영업기획팀 등을 돌며 부서별 직무 특성을 배우고, 백화점과 유통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2주차에는 광주신세계의 영업환경 분석을 비롯해 매출 계획 수립과 프로모션 실행 등 실제 업무 과정에 투입된다.

또 3~4주차에는 골프샵과 푸드마켓 등 실제 영업현장에 투입돼 직접 고객들을 마주하는 등 유통업에 대한 실천경험을 쌓고, 5주차에는 광주신세계 인사지원서 작성과 모의면접을 실시



한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지난 7월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진행했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가 가기 전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한번 더 기획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광주신세계에 기대를 갖고 지원해준 만큼 현장실습 시간이 참가자 모두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02.59(+3.08)
▼ 코스닥	848.34(-6.28)
▼ 금리(국고채 3년)	3.221(-0.013)
▼ 환율(USD)	1294.50(-8.50)